‘처벌 대신 미술치유’ 건강한 성장 지원

전북대 예술대,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전시

청소년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아트테라피 J.A.T’가 제5기 과정을 모두 마치고 23~31일까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제컨벤션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양오봉 총장과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한 예술대 엄혁용 교수를 비롯한 예술 강사, 참여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 예술대학과 전주지방검찰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전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해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처벌 대신 12주간의 미술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예술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일 3시간씩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되짚고, 자아성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나의 발자취:예술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흙점토를 꾹꾹 밟아가며 표현하는 발자취 남기기를 비롯해 마음의 이정표를 상징하는 팻말 만들기, 본인의 발을 직접 본 떠보는 라이브 캐스팅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자기 치유적인 미술활동과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1:1 걷는 인터뷰도 진행하며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6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양오봉 총장과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청소년 예술치유 프로그램 ‘아트테라피 J.A.T’를 총괄 기획한 예술대 엄혁용 교수를 비롯한 예술 강사, 참여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회 오픈식이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참여 학생들은 서툴지만 예술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안식처를 표현한 미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한 엄혁용 교수(예술대 미술학과)는 “이번 5기 프로그램의 주제인 ‘나의 발자취’는 자신의 발을 본뜨거나 발자국을 남김으로써 과거를 되돌아보고, 꿈과 미래를 이정표라는 매개체를 통해 방향성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라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청소년들의 고민과 성찰,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따뜻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아트테라피는 자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활동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상처 난 마음까지 치유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청소년들이 진지한 자기성찰과 자존감 회복을 통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 위에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진채선 기념사업회는 지난 16일 진채선 기념사업회 정기총회를 거쳐 2024년 임기를 마친 제1기 임원진을 대신해 새롭게 제2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진채선 기념사업회’ 제2기 힘찬 출발

정기총회 갖고 임원진 구성… “진채선 선양 · 소리 본고장 고창 알리기 최선”

고창 출신으로 조선 최초 여류국창인 진채선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활동해온 ‘진채선 기념사업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진채선 기념사업회(명예회장 방준형)는 지난 16일 진채선 기념사업회 정기총회를 거쳐 2024년 임기를 마친 제1기 임원진을 대신해 새롭게 제2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최초 진채선 기념사업회 구성에 있어 공동준비위원장을 맞았던 라남근 전 심원면장을 회장으로 방준형 명예회장(심원면장), 부회장 4인으로 김형열 이장협의회장, 정성심 새마을부녀회장, 이수범 전 체육청년회장, 김한욱 사등마을 이장을 감사에 김영환, 김태성 회원을 선출하는데 뜻을 모았다.

기념사업회의 새로운 수장을 맡은 라남근 회장은 “고창 심원 출신인 조선 최초의 여류국창 진채선을 선양하고 소리의 본고장 고창을 알리는데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진채선 기념사업회’는 진채선을 추모하고 재조명하는 기념행사를 매년 9월 1일 고향마을인 심원면 사등마을에서 열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선양사업의 발전과 생가조사를 위한 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 신청 접수

정읍시립박물관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유물 공개 구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유물 공개 구입은 일제강점기 신태인 육리마을에서 ‘채석강도화소’를 운영한 석지 채용신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물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시대의 유형 유물과 기록물도 포함된다.

구입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명확해야 하며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 단체, 또는 문화유산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유물은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가 결정된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유물 공개 구입은 정읍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유물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물 공개 구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그라운드 창업베이스 프로그램 개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완주 로컬크리에이터 그라운드 창업베이스 프로그램’이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완주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완주 로컬크리에이터 그라운드는 완주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과 네트워킹의 장이자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사업화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완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창업베이스 프로그램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조준모 센터장은 “이번 창업베이스 프로그램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비즈니스 설계부터 실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완주문화도시는 이번 창업베이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2021년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농복합형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국립군산대 음악과 이현주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예술 · 관광상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이현주 교수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제2회 예술관광상(공연분야)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개최된 2025 문화예술·관광신년회에서 진행됐다.

신년회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최무연 전북예총 회장, 조오익 전북관광협회장 등 도내 문화예술·관광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현주 교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